

2020년



해외출장 가이드

스위스 취리히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01
II. 역사	05
III. 경제동향	08
IV. 한-스위스 교역동향	16
V. 현지 체류정보	20
VI. 현지 연락처	31





1. 국가개요

1. 국가개요

- 영세중립국으로 유럽연합(EU)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국으로 EU 가입국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
- 작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의약, 기계 산업 위주로 안정된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규모로 세계 20위, 수출규모로 7위에 달함

국명	스위스 연방 공화국 Swiss Confederation (영어), Confoederatio Helvetica(라틴어) * 스위스 국가코드 CH의 어원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독일어), Confédération Suisse(프랑스어) Confederazione Svizzera(이탈리아어), Confederaziun Svizra(로망슈어)
수도	베른(Bern) * 법률상으로 공식수도는 없으나 사실상 수도 기능 수행
국토면적	41,285km ² * 대한민국(100,210km ²)의 약 40%
인구	8,613,629명 ● 주요 지역별 인구 * 스위스는 26개 칸톤으로 구성 - 취리히 칸톤(152만명), 베른 칸톤(103만명), 루체른(40만명)
언어	독일어(65%), 프랑스어(18%), 이탈리아어(12%), 로망슈어(1%), 기타 언어(4%)
민족	독일계(65%), 프랑스계(18%), 이탈리아계(10%), 로망슈계(1%), 기타(6%)
화폐	스위스 프랑(CHF)
종교	천주교(38.2%), 개신교(26.9%) 무교(21.4%) 이슬람교(4.9%), 유대교(0.3%), 기타(9.3%)
기후	연중 평균 10℃의 온난성 기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스위스식 회의체*, 양원제** * 별도의 행정부 수반 없이 연방 평의회 7명의 장관(각료)이 대등한 권리를 갖고 공동으로 정부 운영 ** 칸톤 동수 대표로 구성된 상원, 연방의회(Staenderat) 46명 칸톤 인구비례로 구성된 하원 국민의회(Nationalrat) 20명
국가원수	● 대통령 : 시모네타 소마루가(Simonetta Sommaruga) - 취임일 : 2020.1.1. (임기 1년) - 연방정부 의장으로 연방 평의회 7명의 장관(각료)이 1년씩 돌아가며 임기 수행

* 자료원 : SNB(스위스 국립은행), 통계청, 관세청, UBS, EIU



2. 정치 체제

○ 3단계 국가 권력 분산

-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로 분산 위임
- (연방정부)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업무의 조정 및 감독, 7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7인의 연방평의회*가 각 장관직 담당

* 연방평의회(Bundesrat)

-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정당별 구성(총 7명) : 국민당(2명), 자유민주당(2명), 사회민주당(2명), 기독교민주당(1명)
-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4년 임기, 연말 상하 양원의 신임 투표를 거쳐 각료 연임 및 차기 대통령 결정

<스위스 연방 평의회 구성>

사진				
이름	Simonetta Sommaruga	Ueli Maurer	Alain Berset	Guy Parmelin
담당부처	환경교통 에너지통신부	재정부	내무부	경제교육연구부
소속정당	SP	SVP	SP	SVP
비고*	2010.11월부 2020년 대통령	2009.1월부 2019년 대통령	2012.1월부 2018년 대통령	2016.1월부
사진				
이름	Ignazio Cassis	Karin Keller-Sutter	Viola Amherd	Walter Thurnherr
담당부처	외교부	법무경찰부	국방체육부	총리
소속정당	FDP	FDP	CVP	CVP
비고*	2017.9월부	2019.1월부	2019.1월부	2016.1월부

* 주 : 평의회 선출일

* 자료원 : 연방평의회 홈페이지



* 양원제 연방 의회(Parlament)

- 4년마다 투표로 구성되며, 연방정부의 각 주(Kanton)를 대표하는 상원(Staenderat)과 스위스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하원(Nationalrat)으로 나뉨
- 상원 : 4년 임기, 의석수 총 46석. 일부 작은 칸톤을 제외하고(1석) 각 칸톤별 의석수 2석씩 배정, 각 칸톤별 상원의원은 자체 법률에 따라 선출
- 하원 : 4년 임기, 의석수 총 200석으로 칸톤별 의석은 인구수에 비례. 스위스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취리히 칸톤의 경우 34석 배정

- (주정부) 연방정부 결정사항 시행. 단, 주정부는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및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서는 독자적 전권 행사, 총 26개 주가 있으며 각 주마다 독자적인 헌법, 의회, 정부 및 주 법원 운영, 연방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이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 보유

- (시·군 정부) 2,842개의 시·군으로 구성

○ 주요 정당

- 현재 스위스에는 총 11개 정당이 있으며 이 중 국민당(SVP), 사회민주당(SP), 자유민주당(FDP) 그리고 기독교민주당(CVP)의 지지율이 가장 높음. 그 외 녹색당(GP), 보수민주당(BDP), 녹색자유당(GLP), 개신교민주당(EVP) 및 기타 정당 3개가 있음

※ '19.10.20 총선 결과

- 보수의 국민당, 중도좌파 사민당이 기존과 같이 각 1, 2위 정당 지위를 고수하였으나 각 득표율이 소폭 하락. 제3당 지위도 자민당이 차지
- 기후변화 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이 기민당을 제치고 제 4정당이 됨

순위	당명	의석수	순위	당명	의석수
1	국민당(SVP)	53	4	녹색당(GP)	28
2	사회민주당(SVP)	39	5	기독교민주당(CVP)	25
3	자유민주당(FDP)	29	6	녹색자유당(GLP)	16

* 이 외, 보수민주당(BDP), 복음인민당(EVP), 노동당(Lega), 연대당(PdA) 순



3.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명목)	%	1.86	2.74	0.92	-5.97
	1인당 GDP (명목)	USD	62,231.15	65,009.82	66,196.09	67,557.7
	GDP 규모 (명목)	USD, 억	680.03	705.55	715.36	749.42
	물가상승률	%	0.5	0.9	0.4	-0.4
	실업률	%	3.1	2.55	2.31	2.73
대외 경제	수출	USD, 억	2,991	3,099	3,137	n/a
	수입	USD, 억	2,640	2,755	2,764	n/a
	무역수지	USD, 억	350	344	373	n/a
	외환보유고	USD, 억	8,119	7,876	8,557	9,638
	환율(연중평균)	CHF/EUR	1.11	1.16	1.11	1.06
	주요 교역품 (괄호 : HS코드)	수출	진주·귀석·귀금속(71), 의료용품(30), 유기화학물(29), 과학·정밀·의료기기(90), 기계류(84), 시계(91) 등			
수입		의료용품(30), 전자기기(85), 자동차(87), 기계류(84) 진주·귀석·귀금속(71) 등				

* 주 : '20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치, 국내경제는 전망치

* 자료원 : IMF(아래 교역부분과 차이가 있음), Global Trade Atlas



4. 한국-스위스 양국 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02.11 한-스위스 수교 ○ 1979.06.28 사증면제협정 ○ 1981.04.22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0.08.20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 1995.05 한-스위스 항공협정 ○ 1999.06.29 무역경제협력협정 ○ 2005.12.15 한-EFTA FTA (2006.9.1. 발효) ○ 2007.10.22 한-유럽입자물리연구소간 협력협정 의정서 ○ 2008.05.06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 2010.12.28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2012.7.25. 발효) ○ 2014.01.20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5.6.1.일 발효) ○ 2018.02.09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100억 프랑) 계약 (3년 만기) ○ 2018.06.06 한국-스위스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2020.01.24. 공포)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스위스 수출 : 488백만 달러(2017년), 497백만 달러(2018년), 589백만 달러(2019년), 293백만 달러(2020년 상반기) ○ 對스위스 수입 : 2,735백만 달러(2017년), 3,037백만 달러(2018년), 2,980백만 달러(2019년), 1,281백만 달러(2020년)
교역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스위스 수출 : 의약품, 자동차, 금, 패션잡화 등 ○ 對스위스 수입 : 시계, 의약품, 금, 펌프, 밸브, 의료용 기기 등
투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신고기준) : 226백만 달러(2017년), 107백만 달러(2018년), 185백만 달러(2019년), 82백만 달러(2020년 2분기)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신고기준) : 64백만 달러(2017년) 119백만 달러(2018년), 121백만 달러(2019년), 22백만 달러(2020년 2분기)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74명('17년 12월말 기준) ○ 시민권자 : 659명 ○ 영주권자 : 513명 ○ 체류자(일반, 학생 및 기타(외교, 관용)) : 1,502명

* 자료원 :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주스위스한국대사관 등



II. 스위스 역사

□ 고대·중세 역사

- 스위스 영토 내 신석기 및 구 농경시대 자취가 발견되나, 직계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켈트족 헬베티아인은 BC 15세기 경 독일 남부에서 남하하여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정착. 헬베티아인은 이후 서진하여 현재 프랑스 동쪽 지역에서 로마군과 충돌, 중부고원으로 후퇴. 헬베티아족 중심의 초기 스위스는 BC 58년에 로마제국에 흡수되어 AD 400여년까지 로마제국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음. 이 과정에서 스위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로와 마을이 건설되는 등 인구 및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짐
- 455년 게르만 민족 이동으로 인해 스위스에 현대와 같은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언어권 경계 생성(알레마니족-북부, 부르군트족-서부, 랑고바르트족-남부 등)
- 6세기에 스위스는 프랑크제국에 흡수, 9-12세기에 신성로마제국의 통치 하 유럽의 남북을 잇는 상업 요충지로 발전. 13세기 신성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통치, 자유도시의 등장, 시민계급 대두 등을 거치며 민족의식이 나타나기 시작

○ 스위스 동맹 및 연방의 탄생

- 1291년 8월 1일(추정),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3개 지역이 뢰틀리(Rutli)에서 단합하여 원(原) 칸톤(Ur-Kantone)을 형성. 이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 확장에 대한 공동 대항, 사법행정 자치권 사수를 위한 동맹이며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의 시초가 됨
- 19세기까지 동맹 가입 지역 확대, 현대와 같은 국경선이 정립. 동맹은 1874년 헌법 개정을 실시, 25개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설립을 선포



□ 근대 역사

- 대외적으로 유럽의 30년 전쟁(1618-1648)이 발발, 내부적으로도 천주교-개신교 간 종교 충돌, 민주주의-귀족주의 이념 충돌 등이 나타났으나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음, 이는 향후 스위스 중립정책의 기초가 됨
-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 이 때, 신·구교의 이원화 전통이 확립. 1798년, 나폴레옹은 스위스에 Confederation Helvetica라는 국명을 부여하고 혁명정부를 수립,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종교, 문화와 언론의 자유를 부여. 나폴레옹 몰락이후 헬베티아 혁명정부도 쇠퇴
- 1812년, 스위스 연방은 중립국 선언.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공업이 발달한 칸톤은 개신교 전향, 자유·진보 진영의 정권 획득. 이에 천주교 세력이 반발하여 분리동맹 결성. 그 결과 1847년, 보수·천주교 세력과 자유·진보 개신교 세력 간 충돌, 내란이 발발했고 후자가 승리. 1848년, 신구교간 화해, 새로운 연방헌법을 국민투표로 제정. 이 때, 베른을 연방수도로 정하고 연방정부와 양원제 의회 도입

□ 현대 역사

- 1959년, 보(Vaud) 칸톤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 부여. 1971년, 모든 여성에 투표권 부여하는 국민투표 통과. 1989년, 아펜젤(Appenzell) 칸톤이 칸톤 중 마지막으로 여성투표권 부여
 - * 1999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루트 드라이푸스(Ruth Dreifuss) 당선
- 1959년, 처음으로 국민당(2석), 사민당(1석), 자민당(1석), 기민당(1석)이 4대 정당 연립내각을 구성. 이러한 정당별 연방장관 배정비율은 Magic Formula라 불리며 2003년 총선까지 44년 동안 유지됨
- 1992년, 국민투표에서 스위스의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 EU가입 전단계) 가입 부결. 2002년, 유엔 공식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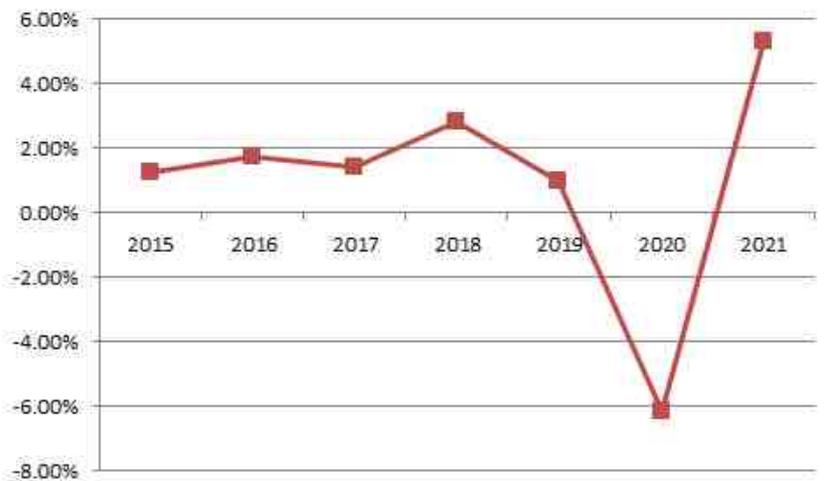


III. 스위스 경제동향

1. 경제 개요

○ 연도별 현황 및 전망

<'15년-'21년 연도별 경제성장률>



* 주 : '20년과 '21년은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의 전망치

* 자료원 : worldbank, SECO

- ('15년-'17년) '15년 1월부 환율 하한제* 중단에 따라 스위스프랑 가치 급등**, 수출 및 수입 증가율 0%대로 감소, 기존 2%대였던 GDP 성장률 1.2%로 하락

* 환율 하한제 :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환율 하한을 1.20으로 제한하는 환율 정책 '11년 유로존 위기 시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가 2달 간 20% 증가하여 도입됨

** '14.12월 평균 1.2024 → '15.1월 평균 1.0983

- ('17년-'19년) '18년 내수시장 호조로 2% 후반대까지 회복하였으나, '19년 미-중 무역분쟁, EU시장 경기침체, Brexit 등의 불안요소로 인하여 1%대에 그침

- ('20년-향후) 스위스 경제 사무국(SECO)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년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 '21년은 주요 스포츠 행사 및 기저효과로 5.3%로 반등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1.4	2.8	1.0	-6.2	5.3
민간소비	민간소비	1.4	1.0	1.2	-7.2	6.5
공공지출	공공지출	1.5	0.3	1.3	2.2	0.7
기업투자	생산시설 투자	1.4	1.2	0.6	-1.5	0.0
	시설용품 투자	4.5	1.1	1.0	-14.0	3.0
고용시장	실업률	3.2	2.9	2.3	3.8	4.1
교역	수출증감률	3.8	4.5	2.6	-8.6	7.2
	수입증감률	5.4	2.4	1.6	-10.1	6.0
물가	물가상승률	0.5	0.6	0.4	-0.9	-0.3

* 자료원 : SECO('20.6.20 발표 전망치)

○ 산업별 경제성장률

- (성장세) '20년 1분기 기준, 화학 및 제약(3.4%), 금융(2.3%), 공공행정(0.8%)
- (하락세) '20년 1분기 기준, 식품 및 서비스(-23.4%), 운송 및 통신(-5.1%), 서비스 수출(-4.4%), 헬스케어(-3.9%)

2. 산업 구성

○ 스위스의 산업은 크게 서비스업, 제조업, 농수산업으로 구분되며, 전체 GDP 대비 각 산업별 차지 비중은 서비스업(73.7%), 제조업(25.6%), 농수산업(0.7%)이며, 총부가가치 중 각 산업별 차지 비중은 서비스업(73.4%), 제조업(18.7%), 농수산업(0.7%), 기타(7.2%)

○ 서비스업 : 16세기 종교 박해의 피난처로 금융 전문가들이 스위스로 이주하면서 전통적으로 금융 중심지로 불리고 있으며, 알프스 산맥 위주로 관광업 또한 발달

- (금융업) 스위스의 정치·경제 안정성, 은행 비밀주의로 세계 자본이 대량 유입되어 있으며, 특히 UBS, Credit Suisse와 같은 국제적인 은행이 스위스에 소재, 두 은행의 자산은 스위스 총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
- (관광업)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통상 전체 경제의 약 2.6%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7조원이 넘는 피해 예상



- 제조업 : 제약·화학, MEM(기계/전자/금속산업), 시계가 수출 중심으로 3대 제조업에 속하며, 공통적으로 노동 의존도가 낮은 고부가 가치 분야에 집중됨, 세부분야별 글로벌 리딩 강소·중견기업이 다수 존재
 - * 저부가가치 제품 및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하며, GVC 체제를 갖춘 경우라도 핵심 공정 역할은 스위스 본사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함
 - (제약·화학) 스위스 최대 제조업이자 스위스 수출의 최대 비중(40%)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그 규모는 943억 프랑('16년 기준, 한화 약 123조원) 특히,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론자(Lonza) 등 세계적인 신약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의약품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출규모는 452억 프랑('20년 상반기 기준, 한화 약 59조원)으로,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 (기계/전자/금속산업) 기계(Machine), 전자(Electronics), 금속(Metal) 3개 분야를 일컫고 총 GDP의 7.3%('17년 기준)를 차지,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으며, 스위스 전체 수출의 약 25~30% 차지, 코로나19로 '20년 전망은 하락세*
 - * 회원사 대상 협회 설문 : 수주 취소로 인해 2-3분기에 걸쳐 매출 지속 감소 우려
 - (시계) 생산량의 95%를 수출. 캐주얼 패션 중심의 스와치(Swatch)부터,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파텍 필립(Patek Phillippe)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제품을 생산. 수출 규모는 212억 프랑('18년 기준, 한화 약 27조원) 스위스 전체 수출의 약 9% 차지. 스마트워치의 확산, 최대 수요처 중국의 수요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소비 감소,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년 2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

3. 교역동향

□ 수출

- (전체 수출동향) '15년 환율하한제 중단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 -7%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18년 고점(3.96%) 달성, '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 귀금속, 유기화학품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



- (품목별 수출동향) '20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인해 금을 포함한 귀금속류 수출이 크게 증가(약 +19%), 의료용품 수출 증가는 Roche(제약), Hamilton(의료기기) 등 코로나19 관련 수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반면 기계류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독일 및 기타 EU국가의 불경기로 인해 감소세(약 -14%)

<스위스의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괄호 안은 증감률 %)

품목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총 계	299,703(-1.06)	310,753(3.69)	314,161(1.10)	153,713(1.69)
의료용품(30)	70,298(4.74)	75,167(6.93)	82,993(11.55)	45,221(10.64)
진주·귀석·귀금속(71)	84,548(-13.94)	81,484(-3.62)	80,287-1.47)	40,983(18.55)
유기화학품(29)	19,870(3.71)	20,787(4.61)	22,007(5.87)	13,096(13.18)
기계류(84)	23,772(6.24)	24,912(4.80)	22,893(-8.10)	9,767(-14.69)
과학·정밀·의료기기(90)	16,065(4.18)	17,333(7.89)	17,289(-0.25)	7,755(-10.85)

- * 주 : 상반기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국가별 수출동향) '20년 상반기 수출은 對미국 귀금속 수출 증가(전년 동기대비 1447.49%)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기타 주요 국가에서 전반적인 수출 규모 감소

<스위스의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괄호 안은 증감률 %)

수출대상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총 계	299,703(-1.06)	310,753(3.69)	314,161(1.10)	153,713(1.69)
미국	36,795(-0.44)	40,919(11.21)	43,888(7.26)	40,642(90.60)
독일	45,393(4.61)	47,500(4.64)	47,974(1.00)	24,576(2.65)
프랑스	17,091(-2.68)	19,673(15.11)	19,590(-0.43)	8,03(-10.37)
중국	24,484(-9.26)	30,333(23.89)	21,564(-28.92)	7,697(-22.58)
이탈리아	15,836(8.36)	16,534(4.41)	16,150(-2.32)	7,186(-13.17)

- * 주 : 상반기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수입

- (전체 수입동향) '15년 환율하한제 중단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 - 8.34%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18년 고점(3.9%) 달성, 이후 성장세 주춤, '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진주·귀석·귀금속 및 의료용품 수입이 각각 28.2%, 28.5% 증가, 총 수입 2.73% 증가
- (품목별 수입동향) 안전자산 및 의료용품 외 전반적 감소세, 특히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약 - 22%), 코로나19 이후 완성차 수요 급감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스위스자동차딜러협회(VFAS)는 '20년 자동차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스위스의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괄호 안은 증감률 %)

품목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총 계	268,944(-0.44)	279,422(3.90)	277,818(-0.57)	138,760(2.73)
진주·귀석·귀금속(71)	90,226(-11.05)	86,867(-3.72)	87,153(0.33)	49,812(28.16)
의료용품(30)	28,740(17.08)	29,982(4.32)	31,563(5.27)	19,544(28.48)
기계류(84)	18,772(8.40)	20,062(6.87)	19,616(-2.22)	9,073(-8.03)
전기기기(85)	14,184(5.40)	14,904(5.07)	14,585(-2.14)	6,841(-4.70)
자동차(87)	14,995(3.21)	15,498(3.36)	16,038(3.49)	6,347(-22.19)

* 주 : 상반기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국가별 수입동향) 對영국 및 중국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영국발 수입은 기저 효과('19년, - 38%)와 귀금속 수입 증가(84.27%)로 인해 '20년 상반기 기준 20.4% 증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마스크(기타방직용 섬유 제품-HS63, 729.96%)등 방호물품의 수입이 견인, 전년 대비 12.3% 증가, 프랑스(9.9%) 또한 의료용품 수입증가(176.90%)의 영향, 이외 주요국 수입은 전반적 감소세



<스위스의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괄호 안은 증감률 %)

수입대상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총계	268,944(-0.44)	279,422(3.90)	277,818(-0.57)	138,760(2.73)
독일	55,432(6.85)	57,842(4.35)	57,537(-0.53)	27,048(-6.07)
영국	19,353(3.17)	26,495(36.91)	16,487(-37.77)	10,617(20.40)
이탈리아	20,148(1.87)	21,269(5.57)	22,372(5.18)	10,313(-5.71)
미국	21,508(-12.17)	21,352(-0.72)	18,998(-11.02)	9,023(-2.63)
프랑스	18,148(9.07)	20,161(11.10)	19,018(-5.67)	8,984(9.88)
중국	13,320(6.62)	14,757(10.78)	15,153(2.69)	138,760(12.31)

* 주 : 상반기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투자 * 스위스 중앙은행(SNB), '18년까지의 통계자료 공개 ('20년 6월 발표자료)

○ (전체 투자동향) '18년 말 기준, 스위스의 해외투자금액(Outbound Investment)은 누계 1조 4,665억 프랑(한화 약 1,914조원), 해외로부터 스위스로 유입된 투자금액(Inbound Investment)은 1조 2,959억 프랑(한화 약 1,691조원)

<스위스의 투자 동향>

(단위 : CHF 십억)

구분		2017년	2018년
Outbound	flow	30.1	60.6
	stock	1398.6	1466.5
Inbound	flow	105.6	-52.0
	stock	1281.3	1295.9

* 자료원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년 6월 발표자료

- (Outbound; 해외투자진출) 지역별 누계(stock)로는 유럽(59%), 북미(22%), 중남미(10%), 기타(9%)순, 분야별 누계(stock)로는 서비스업(78%), 제조(22%) 순
- (Inbound; 해외투자유치) 지역별 누계(stock)로는 유럽(89%), 북미(6%), 중남미(4%), 기타(1%)순, 분야별 누계(stock)로는 서비스(86%), 제조(14%) 순



<스위스의 Inbound/Outbound 직접투자>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nbound 직접투자	75,282.73	88,592.42	107,322.1	-53,151.26	-21,740.01
Outbound 직접투자	88,751.37	122,065.38	30,144.52	60,782.05	11,097.09

* 자료원 : UNCTAD

○ 투자 환경

- (긍정적 요인) 지정학적 및 경제적 안정성, 친기업적인 시장 분위기, 낮은 법인세율, 풍부한 우수인력, 낮은 행정리스크*
 - * 기업 설립, 인력 채용 및 해고, 기업 청산, 자본 유입 및 회수 등이 용이
- (부정적 요인) 높은 물가(인건비, 운영비),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EU, 스위스에 EU 기준 수용 요구 중), 작은 내수 시장
- 스위스에는 한국의 경제특구, 산업공단 등의 개념은 없으나 바젤(제약), 추크(블록체인, 핀테크) 등 시장주도하 특정 산업이 발달



※ 주요 지역별 투자여건

- **취리히(Zurich)**
 -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 수도, 세계적인 금융허브
 - 다수의 Fortune 500 기업이 소재(Zurich Insurance, UBS, Credit Suisse, Swiss Re, Chubb, ABB, ADECCO 등)
 - 특히,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연간 부가가치 약 250억 프랑 창출
 - 세계 최고 수준인 취리히 공대(ETH)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발달
- **제네바(Geneva)**
 - 스위스 제 2의 도시
 - UN 사무국,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주요 국제기구 밀집 지역
 - 프라이빗 बैं킹 중심의 금융업이 발달했고 제네바 모터쇼, 비타푸드 등 국제 전시회의 개최지
- **바젤(Basel)**
 - 바이오 제약·화학 산업이 발달,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로슈, 론자 및 화학기업 클라리안트, 신겐타 등이 소재
 - 독일, 프랑스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송업 발달
- **베른(Bern)**
 - 스위스의 행정 수도
 - 광업, 제조/건설업이 발달
 -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 OMEGA, Swatch Group 등 세계적인 시계 제조사를 중심으로 정밀기계/시계 부품 제조사 다수 소재
- **보(Vaud)**
 - 세계 최대 식품회사 네슬레의 본사 소재지
 - 취리히 연방공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로 손꼽히는 로잔연방공대가 위치하여 우수 인재 채용에 용이
- **주크(Zug)**
 - 낮은 법인세와 친시장적 지방정부 등을 이유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주사(Holding companies) 유치
 - 최근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약 600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동 칸톤에 밀집

※ 세금 종류

- 법인세/개인 소득세(Gewinnsteuer/Einkommenssteuer) : 법인세 2~24% 수준(칸톤 및 지방자치세)으로 칸톤별 상이, 총 26개 칸톤 기준 평균 법인세율은 17.06%이며 15개 칸톤이 평균 이하의 법인세율을 부과
 - * 주요 칸톤별 법인세율 : 제네바(24.2%), 취리히(21.2%), 바젤(13%), 추크(14.4%), 루체른(12.3%)
-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 Kapitalsteuer) : 칸톤에서 징수하며 세율은 기업의 순 지분규모에 따라 부과(통상 약 0.01%)
- 개인 순 재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 Verm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 Verm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 Grundstückgewinnsteuer 및 Handaenderungs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 그 외 오토바이세, 애견세, 칸톤 인지세, 수력발전소세, 복권세 등



IV. 한-스위스 교역동향

1. 무역

- (무역수지) 한국의 對스위스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18년 이후 적자폭 감소 추세, '20년 상반기에는 수출 2.1% 증가, 수입 12.1% 감소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수출(증감률)	488(-12.5)	497(1.8)	589(18.6)	293(2.1)
수입(증감률)	2,735(16.4)	3,037(11.1)	2,980(-1.9)	1,281(-12.1)
무역수지	-2,247	-2,540	-2,391	-988

* 직전년도 상반기 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 현황

- '19년 기준, 총수출 규모는 589백만불, 전년대비 18.6% 증가.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121백만불, 총수출의 20%), 승용차(93백만불, 총수출의 16%), 전기자동차(35백만불, 총수출의 6%) 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54%를 차지

* '19년 의약품 수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434%, 한국 대기업의 CMO생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 '20년 상반기 기준, 총 수출 규모는 293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 주요 품목은 의약품(85백만불, 총수출의 29%,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39.1%), 전기자동차(28백만불, 총수출의 10%,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34.7%), 금(21백만불, 7%,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34.7%)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순위	품목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89	18.6	293	2.1
1	의약품	123	330.7	85	39.1
2	전기자동차	35	68.5	28	34.7
3	금	32	18.2	21	34.7
4	승용차	93	-21.2	18	-52.8
5	시계	33	-28.9	14	-16.6
6	기타플라스틱제품	37	10.8	11	-40.4
7	항공기부품	0	80.6	10	9334.2
8	기타정밀화학원료	14	21.9	10	151
9	기타화학공업제품	10	-7.2	8	77.2
10	백금	20	352.6	5	-64.6

* 직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감률

* 주 : 수출 품목 순위는 '20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스위스 수입 현황

○ '19년 기준 총수입 규모는 2,980백만불, 전년대비 1.9% 감소. 주요 수입 품목은 시계(820백만불, 총수입의 28%), 의약품(502백만불, 총수입의 17%), 금(195백만불, 총수입의 7%) 등. 상위 3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51%를 차지

○ '20년 상반기 기준, 총수입 규모는 1,281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12.1% 감소. 주요 품목은 시계(309백만불, 총수입의 24%, 전년 동기대비 21.2% 감소), 의약품(242백만불, 총수입의 19%,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 등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순위	품목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980	-1.9	1,281	-12.1
1	시계	820	8.5	309	-21.2
2	의약품	502	0.8	242	-6.3
3	펌프	105	10.0	46	-15.8
4	밸브	66	-20.6	46	74.8
5	의료용기기	96	3.0	45	-6.7
6	주얼리	106	34.9	36	-21.5
7	금	195	-21.6	33	-64.5
8	커피류	63	48.6	33	10.9
9	계측기	59	0.8	29	-2.9
10	금속절삭가공기계	53	-46.1	28	-9.7

- * 직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감률
- * 주 : 수입 품목 순위는 '20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 투자

□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 '20년 1분기 투자신고 기준, 스위스의 대한 투자 규모는 총 누계 31.8억불, 분야별 비중은 제조업(59%), 서비스업(38%), 기타(3%) 순. 건당 투자금액은 제조업(5.8백만불)이 서비스업(2.4백만불)보다 크지만, 세부분야 기준, 건당 투자금액은 서비스업의 금융·보험이 가장 높음(14.5백만불)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규모 및 산업별 누적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투자규모(누계)	주요 세부분야	
		총 투자규모 순	건당 투자규모 순
제조업	1,874	기계장비·의료정밀 539	식품 11.9
		화학 373	섬유직물의류 10.8
		식품 368	전기전자 7.7
서비스업	1,222	도소매(유통) 555	금융보험 14.5
		금융보험 347	숙박음식점 10.8
		정보통신 137	정보통신 2.9
기타	87.2	전기가스 55	전기가스 27.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3년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대규모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20년 1분기에는 공항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 분야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여 비중 역전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규모 및 산업별 누적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분기
총 신고건수	35	29	34	15
총 신고금액	226.3	106.8	184.7	81.5
제조업	108.5	58.0	152.8	77.6
서비스업	107.8	48.6	31.9	3.9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 '19년 기준,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37위 투자 대상국, 작은 내수시장, 높은 물가수준, 非EU회원국 지위, 언어적 장벽 등의 이유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분야로는,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큼

<한국의 對스위스 누적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17년	2018	2019	2020.2분기	누계*
신고건수	26	12	12	3	213,069
신고금액	63.5	118.9	120.9	21.8	531,037
투자금액	63.5	97.9	103.6	0.47	706,083

* 집계기간 '80년-'20년 2분기

* 자료원 : 수출입은행



V. 현지 체류정보

□ 비자

-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일반 사증 면제협정 체결(1979년 6월)로 3개월(90일)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스위스 연방 이민청의 거주 허가, 칸톤(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노동청의 노동허가, 칸톤(주) 이민청의 거주허가, 주한스위스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스위스, 코로나19 입국 제한 및 통제 해제 (7.20. 부 실시, 8.19. 업데이트)

- 코로나19로 입국이 불가능하였으나, 스위스 연방정부는 6월 15일부로 쾅겐 지역 국민 및 체류증 소지자 대상 입국제한 및 통제를 해제하고 7월 20일부로 일부 비생겐 국가* 국민 대상 입국 제한 해제를 공지함. 단,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위험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이상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입국허가가 나지 않은 국가에서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
- * 무사증 입국 가능 비생겐 국가(21개)
 - 한국, 일본, 알제리, 안도라,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조지아, 아일랜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루마니아, 산마리노,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바티칸
- ** 위험국
 -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레인, 볼리비아, 브라질, 카보 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이라크, 이스라엘, 코소보, 쿠웨이트,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오만, 파나마, 페루, 카타르,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터크 스케이 커스 제도, 미국, 팔레스타인 영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스와질란드,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몰디브, 멕시코, 몬테네그로, 수리남, 아랍 에미리트, 스페인(발레레안 군도 및 카나리아 군도 제외), 싱가포르, 루마니아, 적도기니, 바하마 군도, 상투메 프린시페 및 신티 마르틴

- 현지 비자 발급 절차
 - 스위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한 스위스 대사관 통해 비자 신청
 - 입국비자(3개월)로 입국 후 거주지 소재 동사무소(Gemeindebüro 혹은 Kreisbüro)에 체류허가 신청, 체류허가 신청 시 신청서양식, 비자발급통지서, 여권, 주택임차 계약서 또는 거주지 확인서, 사진 1매 지참
 - 이민청 방문(지문 및 사진 등록)
 - 체류허가증 발급



○ 국내 비자 발급처

- 발급처 : 주한 스위스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화/팩스 : 02-739-9511-4 /02-737-9392
- 홈페이지 : www.eda.admin.ch/seoul
- 이메일 : swissemb@seo.rep.admin.ch
- 휴일 : 토요일, 일요일, 양국 국경일
- 주의사항 : 평일에도 비자발급 영사업무는 주로 오전 중에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을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방문

○ 출입국 시 유의사항

- 초록색 통관대(Nothing to declare)에서 입국자 별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입국자는 적색 통관대(Goods to declare) 이용
- 입국 시 특별한 예방접종 확인서는 요구하지 않으나, 천연두 감염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제 천연두 접종 확인서 필요
- 출국 시 스위스 군용나이프 및 칼날이 있는 제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한 경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반드시 마스크를 소지, 스위스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각 주(칸톤) 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이 다르니, 이를 확인하고 방문
- * 현지에서 덴탈 마스크는 1박스(50개입) 기준, 19~35 CHF 가격으로 판매

□ 기후

-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해양성·북유럽성·지중해성·대륙성 총 4개의 기후권이 교차. 연평균 기온은 8~10℃이며, 사계절이 있으나 계절별 기온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 예외적으로 4월의 경우, 온도차가 크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주의 필요

□ 시차/근무시간

- 한국 시각 = 스위스 시각 + 7 (서머타임인 3월말부터 10월 말, 그 외 8시간)
* (예시) 스위스 10시-한국 17시 (서머타임 이외 기간에는 18시)
- 사무직의 경우 대부분 주 40시간(08:00-17:00 또는 09:00-18:00), 5일 근무, 토요일에는 일반 상점만 개점이나 변두리 지역의 경우엔 토요일도 운영하지 않거나 오전까지만 개점하는 경우도 많음.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 근무를 하거나 주중 일부 휴무인 경우도 있으니 방문 시 미리 확인 필요. 일요일에는 전국의 모든 상점 및 사무실이 휴무.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과 공항 내 상점 및 특별 허가를 받은 식료품 매장은 일요일에도 영업. 공항, 기차역 내 상점은 매장에 따라 다르나 22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음

□ 교통

- 전차와 버스의 경우 티켓 자동판매기에서 티켓 구입 후 승차, 스위스 시내에서 사용시간에 따라 1시간용(CHF 4.40), 24시간용 티켓(CHF 8.80)이 있으며, 동일한 티켓으로 전차와 버스 모두 이용 가능
- 일반대중교통은 구간제를 적용, 구입한 티켓의 사용시간 내에 기본 구간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시외곽으로 이동할 시 기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 필요
-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8프랑이며, Km당 3~4프랑이 추가. 승객 수와 소지 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음.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택시를 이용

□ 통신

- 스위스→한국: 00, 82 (한국), 지역번호(최초의 0은 불필요), 수화자 번호



- * (예시) 서울 내 987-6543로 전화할 경우 : 00-82-2-987-6543
- 한국→스위스: 001 또는 002, 41(스위스), 지역번호(최초의 0은 불필요)순
- * (예시) 취리히 내 01/456-7890으로 전화할 경우 : 001(또는 002)-41-1-456-7890
- 출장자가 2인 이상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예그 등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평, Prepaid SIM(선불심) 이용 시, 하루 2프랑이며 10일권부터 구매 가능

□ 공휴일

- 칸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공휴일 전후로 장기 휴가를 가는 근로자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취리히 칸톤 기준 2020년 공휴일>

날짜	공휴일명	비고
1.1	Neujahr	새해
1.2	Berchtoldstag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일 휴무
4.10	Karfreitag	부활절 전 금요일
4.13	Osternmontag	부활절 연휴
4.20	Sechselauten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일 휴무
5.1	Tag der Arbeit	노동절
5.21	Christi Himmelfahrt	예수 승천일
6.1	Pfingstmontag	성령강림절
8.1	Nationalfeiertag	국경일
9.14	Knabenschiessen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오후 휴무
12.25-12.26	Weihnachten	성탄절

□ 에티켓

- 스위스는 인건비가 비싸,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종사자가 적어 우리나라 대비 서비스가 느린 편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
- 식당, 카페 등에서의 팁은 미국과 같이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2프랑 지불
- 독일인과의 비교를 삼가 해야 하며, 스위스인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

※ 우호적인 대화 주제

- 윌리엄텔(빌헬름 텔) : 14세기 초반 스위스 칸톤 우리(Uri)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영웅이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석공 명인으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지배자가 꼬투리를 잡아, 그에게 가족의 머리에 얹은 물건을 과녁으로 화살을 쏘게 했다. 활의 명인은 시련을 이겨내고 과녁을 맞혔다. 이후의 이야기지만, 명인은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 가족이 다칠 경우 지배자를 쏘기 위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훗날 그 지배자는 활의 명인이 쏜 것으로 여겨지는 의문의 화살을 맞고 최후를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존인물로 알고 있지만 가상인물이다. 다만 전설의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여, 그가 사과를 쏜 날짜가 1307년 11월 18일이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다.
- 스위스 아미 나이프(Swiss Army Knife) : 본디 스위스군용 단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빅토리녹스와 웅거사에서 제작하는 다목적 주머니칼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머릿글자를 따서 SAK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큰 범주로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멀티툴에 포함되는데, 자체적인 멀티툴을 제식 채용한 군대는 스위스군 외에도 영국군, 러시아군이 있다. 다만,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대표적인 멀티툴 나이프가 되었다. 도구들의 열처리가 잘 되어있고, 도구를 고정해주는 스프링의 장력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5년에 빅토리녹스사가 웅거를 인수했지만 웅거의 브랜드 및 제품군은 계속 유지하였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품질 관리를 위해 모든 제품이 스위스의 슈비츠(Schwyz)시에서 제조되고 있다.
- 스위스 와인 : 스위스인은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에 식사 시 메인 대화 주제로 와인이 자주 등장한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평지가 적지만, 오래전부터 햇빛이 잘 드는 구릉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포도를 재배해 왔다. 복잡한 기후와 지형으로 인해 스위스 와인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발레주, 보주, 제네바주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데, 스위스 와인은 극히 소량만이 외국에 수출되며 대부분이 현지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 스위스 초콜릿 : '초콜릿(Chocolate)'이란 이름 자체는 멕시코 메시카 족이 카카오 빈과 고추로 만든 음료인 나우아틀어로 쓴 물을 뜻하는 쇼콜라틀(Xocolatl)에서 유래됐다. 15세기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4번째 항해를 하던 중 유카탄 반도 연안의 카카오 빈을 포함한 농산물을 가지고 돌아와 16세기부터 고국인 스페인의 귀족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1876년 스위스의 다니엘 피터와 앙리 네슬레가 코코아 버터의 성질을 이용하여 성형판을 만들고, 크림에 초콜릿을 입히는 법을 개발하여 밀크 초콜릿의 시초가 되었다. 쿠키나 케이크 등에 외피처럼 입힐 수 있는 커버링 초콜릿도 같은 해 스위스의 Lindt에서 제조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스위스의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로는 Toblerone, Lindt, Caillers, Ragusa, Frey, Laderach 등이 있다.

- 자국 은행 시스템을 화제로 삼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대화에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스캔들 관련 주제는 삼가
- 스위스는 다민족 다문화가 융합되어있는 나라로 인종 관련 발언이나 특정 문화를 비하하는 발언 삼가



○ 기타 참고사항

- 대중교통 및 승강기 등을 이용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내릴 때 까지 기다린 후에 탑승하는 것이 매너이고, 밀치거나 부딪히는 것은 금물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므로 주택가나 도심에서 운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
- 네비게이션에서 카메라 촬영구간에 대해 예고해주지 않으며 높은 벌금을 부과하므로 제한 속도 내 주행
- 길거리 및 옥외 식당 등에서 흡연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고 길에 껌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나 침을 뱉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함
- 일반적으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보행 안전 수준이 높은 편이나 트램, 버스, 자전거 등에는 주의. 특히 운전하는 경우 트램과 버스의 전용차선, 회전교차로 등에 유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분쟁 없이 서로 연락 정보를 교환한 후 보험사를 통해 사후 처리하는 편이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당사자 간 긴 대화는 나누지 않는 편

□ 전기

- 220볼트 50헤르츠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3개 또는 2개짜리 핀으로 구성된 플러그 사용, 국내 전자기기 사용 위해서는 별도 어댑터 필요

□ 관광

○ 취리히 주요 식당

- 한식당 * 가격 단위 : CHF

이름	연락처 / 주소	대표 메뉴 / 가격	이동 수단
미소가	Tel : +41 44 251 9990 Drahtzugstrasse 5, 8008 Zürich	- 소불고기: 38 - 소고기비빔밥: 35 - 김치찌개: 35	트램라인 11, S18번 'Hegibachplatz' 하차
아카라카	Tel : +41 43 538 3085 Badenerstrasse 649 8048 Zurich	- 소불고기돌솥비빔밥: 27 - 불고기뚝배기: 32 - 육개장: 32	트램 라인 2 번 'Grindelstrasse' 하차
신라	Tel : +41 44 431 8080 Badenerstrasse 503 8048 Zürich	- 돌솥비빔밥: 29 - 김치찌개: 32 - 육개장: 35	트램 라인 2번 'Letzigrund' 하차
미니네 스시	Tel : +41 44 260 8929 Zeltweg 12, 8032 Zürich	- 돈부리: 38 - 수시: 20 - 수시 메뉴: 39	트램 라인 3,5,8,9번 'Kunsthau' 미술관 앞



- 현지식당 * 가격 단위 : CHF

이름	연락처 / 주소	대표 메뉴 / 가격	이동 수단
Zeughauskeller (스위스전통식/ 소시지전문)	Tel : +41 44 220 1515 Bahnhofstrasse 28a 8001 Zurich	- 돼지통다리구이: 25 - 송아지덮밥: 33 - 송아지소세지: 18	트램 6,7,11,13 'Paradeplatz' 하차
Adler's Chuchi (퐁듀전문)	Tel : +41-44 266 96 66 주소 : Rosengasse 10 8001 Zürich, Schweiz	- 퐁듀: 30~35 - 라클렛: 30~40	Niederdorf 거리에 위치 (트램 4, 11 'Rathaus' 하차)
퐁듀트램* (Fonduetram)	Tel : +41 84 880 18 80 주소 : Bellevueplatz, 8001 Zurich	- 메뉴 퐁듀 통일 - 1인당 93프랑	이동 트램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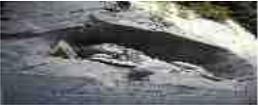
○ 주요 명소

- 취리히(Zürich)

장 소	설 명
 반호프 거리 (Bahnhofstrasse)	취리히 중심가에 위치한 거리. 세계에서 3번째, 유럽에서는 가장 비싼 쇼핑거리. 반호프 광장(Bahnhofplatz)에서 시작하여 렌베그(Rennweg),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를 거쳐 취리히 호수가 있는 Buerkliplatz까지 1.4km에 달함. 롤렉스, 오메가, 샤넬 등 수많은 상점들이 위치
 그로스뮌스터 Grossmünster ("Great Minster")	서기 1100년부터 1200년에 걸쳐서 건축된 스위스 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서원. 칼 대제에 의해서 건축된 교회당 자리에 세워짐. 지하 및 교회의 강변 쪽 창가에 칼 대제상이 위치.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가 임종 때까지 이곳에서 설교를 하였다 하여, 종교 개혁의 어머니 교회로 일컬어지기도 함. 꼭대기의 쌍둥은 고딕식 탑으로 취리히의 상징물 중 하나
 프라우뮌스터 (Fraumünster)	프라우뮌스터(영어로 직역할 시 'Lady's Minster')사원. 853년 경, 게르만인 루이스가 자신의 딸 힐데가르드를 위해 세운 사원. 루이스는 당시 취리히 지역의 땅 일부인 우리(Uri)와 알비스(Albis) 숲 부분을 베네딕트 수도회에 기부하면서 수도원을 본인의 직접적인 소유 아래 두는 것을 허가받음
 취리히 호수 (Lake Zurich)	취리히 호수. 반호프 거리(Bahnhofstrasse)와 근접한 취리히 남서쪽으로부터 바나나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어 상갈렌(St. Gallen), 슈비츠(Schwyz) 지역에까지 걸쳐 있음. 호수 변을 따라 이어진 곳에는 스위스 상류사회의 웅장한 저택을 볼 수 있으며 호수 동쪽 끝에 있는 장미의 도시(Rapperswill)에서는 600여종에 이르는 장미를 구경 할 수 있음



- 루체른(Luzern)

장 소	설 명
 카펠교(Chapel Bridge)	14세기 경 도시 요새화 목적으로 축조. 성 피터 채플 근처에 위치하여 Chapel Bridge로 명명된 바 있음. 17세기에 다리에 그려진 그림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을 수호했던 성 레오드가, 성모리스를 묘사
 성 레오데가 성당 (Hofkirche St. Leodegar)	성 레오데가 성당은 루체른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임. 로만바실리카재단에 의해 1633년 축조되었으며 같은 해 화재가 발생. 17세기 스위스와 독일지역에서 일어났던 신구교도간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 간에 축조된 몇 안되는 북알프스지역의 성당으로 후기 게르만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중 하나
 빈사의 사자상 (The Monument)	빈사의 사자상은 바위 면에 얼굴을 묻고 죽어가는 사자의 부조물로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지키다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1821년 세운 기념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 사자상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슬픈 석상'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음.
 필라투스 (Pilatus)	루체른에 오롯이 위치한 필라투스(Pilatus)는 '용의 산'으로 불리우며 날씨를 좌지우지 하는 영험한 신령, 용의 은신처, 거인의 집과 통치자의 무덤 등의 전설이 내려오는 신비한 명소 중의 한 곳으로, 중부 스위스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여행지임. 맑은 날에는 73개의 알프스 정상에 한눈에 보이는 경치를 자랑함.(해발 2,123m)

- 융프라우/인터라켄 (Jungfrau/Interlaken)

장 소	설 명
 융프라우요호 (jungfrauoch)	융프라우산의 쇄골이라는 뜻으로 융프라우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유럽의 지붕(Jungfrauoch-Top of Europe)이라고도 불림. 1912년 융프라우 철도 개통 이래 많은 여행객을 불러 모으고 있음. 이 곳은 클라이네 샤이덱 부터는 아이거 북면 아래의 터널을 통과하여 융프라우요호 역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해발 3,453m임.
 얼음궁전 (Ice palace)	길이 70미터의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의 하나인 동화속 빙하의 수천년 된 얼음으로 이끌고 있음. 5,000입방 미터 크기 이상의 동굴(grotto)은 해발 3,456미터 높이의 지하에 자리한 알프스 열차인 메트로 알핀(Metro Alpin)의 정거장인 미텔알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빙하 내부 깊은 곳의 경관을 선사함. 다양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으며 융프라우 철도 설립자인 아돌프 구이어 젤러(Adolf Guyer Zeller)에 관한 그림 등이 전시되어있음.
 실트호른(Schilthorn)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 계곡에서 이어지는 2,970미터의 실트호른(Schilthorn)은 거대한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 뿐만 아니라 멀리는 몽블랑과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까지 볼 수 있음. 실트호른은 제임스 본드의 영화 "여왕폐하 대작전(Oh Her Majesty's Secret Service)"의 촬영지이기도 함.



- 베른(Bern)

장 소	설 명
 <p>베른 시계탑 (Zytglogge)</p>	<p>1191년 축조된 시계탑. 베른의 관문과도 같으며 그 역사가 베른만큼이나 깊음. 구리로 된 첩탑이 꼭대기에 멋스럽게 장식되어 주변 경관을 압도함 매 시 정각 5분전엔 관광객들이 500년 된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임. 종교개혁 즈음에 완성되었으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베른의 모든 시계가 시계탑의 시간을 따라 맞출 만큼 정확도와 권위 면에서 최고였음</p>
 <p>베어 파크 (Baerengraben)</p>	<p>2009년 10월에 오픈한 베어파크. 베른의 곰들은 강변의 약 60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음. 오래된 곰 굴에는 아직도 베른의 곰들이 살며, 몸집이 작은 아기 곰이 드나드는 곰굴의 경우 내부를 수리해 기념품 숍으로 만들어 놓았거나 일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기도 함.</p>
 <p>장미 공원 (Rosengarten)</p>	<p>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하나로 베른의 구시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 큼직한 테라스와 유리창, 화사한 장미꽃으로 둘러싸인 레스토랑은 어느 때나 방문해도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 레스토랑에서는 조식을 포함하여 매 식사시간 훌륭한 메뉴를 선보이며 그 날의 특별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음. 베어파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 또한 용이함.</p>
 <p>파울 클레 센터 (Zentrum Paul Klee)</p>	<p>2005년 개관한 파울 클레 센터. 파울 클레(1879-1940)의 일생과 작품 및 화가 개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클레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함. 파울 클레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거론됨. 이태리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에 의해 설계된 독특한 건물은 파도 같은 구조를 지님. 건물에는 전시회 공간, 음악 및 이벤트 홀, 어린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팅과 세미나 룸까지 함께 자리함. 클레의 작품은 120-150 작품씩 주기적으로 교대되어 전시하고 있으며, 교대마다 테마에 변화를 주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함.</p>

- 제네바(Geneva)/ 로잔(Lausanne)/ 몽트뢰(Montreux)

장 소	설 명
 <p>UN 제네바 사무소 (UNOG)</p>	<p>국제 연합 제네바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사무소 유엔의 4개 사무소 소재지 중, 뉴욕 다음으로 큼. 1929년부터 1938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했던 국제연맹 유럽본부를 사용하고 있음. 유럽 경제 위원회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는, 국제 교육 사무국, 국제 노동 기구, 국제 무역 센터, 세계 보건 기구, 세계 기상 기구 등이 있음.</p>
 <p>제네바 분수(Jet d'Eau)</p>	<p>제네바의 랜드마크. 'Coulouvrenière 수력공사'의 밸브로 500리터의 물을 시속 200km의 속도로 140m 상공에 쏘아 올려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함. 1886년 도시의 분수대와 가정집, 공장에 공급될 수력발전소가 세워지는 동안 고압으로 물을 뿜을 수 있는 밸브를 시험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Jet d'Eau'가 탄생한 계기임.</p>



**파텍필립 시계박물관
(Patek Philippe
Museum)**

파텍 필립 박물관은 유명 시계 제조사 파텍 필립사에서 운영하는 시계 박물관

1550부터 1800년까지의 고대 아름다운 시계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183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파텍 필립사에서 제조한 시계도 전시되어 있음.



**로잔연방공과대학교
(EPFL)**

1853년 로잔 공과연구원이라는 이름의 사립학교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1869년 로잔 기술원의 공업 분과로 편입되면서 공립학교가 됨.

유럽의 MIT로 불리는 EPFL은 ETH와 함께 Swiss Federal Institutes of Technology의 소속 공대임. 현재 2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 로잔 공과대학은 기존의 로잔대학교에서 떨어져 나온 프랑스어권 공과 기관으로서의 로잔 연방 공과대학이 됨.



**롤렉스 러닝 센터
(로잔)**

스위스 연방 기술 연구소에 위치한 롤렉스 러닝 센터.

50만 개에 육박하는 롤렉스 제품과 기술연구소가 위치(롤렉스 본사는 제네바에 있음)해 있으며, 로잔의 새로운 랜드마크 격으로 2만 제곱미터의 건물 안에 호텔, 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입점함.

제네바 호수를 지척에 두고 자연 경관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건물 외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함. 세계적인 일본의 건축디자인 펌 SAANA가 디자인하여 건축계의 노벨상 Pritzker상을 수상한 바 있음.



**Château de Chillon
(몽트뢰)**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성.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바이런 같은 작가들부터 들라크루아, 쿠르베에 이르는 예술가들이 시옹성에서 수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함.

성이 위치한 작은 섬은 지리적 요지.

19세기 말경부터 성의 복원이 시작되어 수많은 보수공사와 보존 작업을 걸쳐 현재의 시옹성이 있을 수 있었음.



□ 간단 독일어

※ 인사

- Hallo [할로] 일반 인사
- Guten morgen [구텐 모르겐] 아침인사
- Guten Abend [구텐 아벤트] 저녁인사
- Willkommen [빌콤폜멘] 환영합니다
- danke schön [당케 쉐] 감사합니다
- Schönen Tag [쉐넨 탁] 좋은 하루 보내세요(작별 시)
- Schönen Abend [쉐넨 아벤] 좋은 저녁시간 보내세요(작별 시)
- Gleichfalls [글라이히팔스] 당신도요/마찬가지로요

※ 자기소개

- Ich freue mich, Sie kennenzulernen [이크 프로이에 미헤, 시 켄넨 추 레르넨] 만나서 반갑습니다
-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Wie heissen Sie? [뷔 하이쎌 시?]
- 제 이름은 00입니다. Mein name ist 00 [마인 나메 이스트 00]

※ 그 외 유용한 회화

- Wie viel kostet das? [비 필 코스테트 다스?] 얼마예요?
- Bitte [비테] 천만예요 (영어의 Please)
- Kein Problem [카인 프로블렘]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 Ja, genau . [야, 게나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Stimmt So[슈팀트 조] 잔돈은 됐어요

※ 숫자

0 null [널]	1 eins (아인스)	2 zwei (쯔바이)	3 drei (드라이)
4 vier (뵉어)	5 fuenf (퓌네프)	6 sechs (셱스)	7 sieben (지벤)
8 acht (아흐트)	9 neun (노인)	10 zehn (첸)	11 elf (엘프)
12 zweielf (쯔뵘일프)	13 dreizehn (드라이첸)	100 hundert (훈덜트)	1000 tausend (타우젠트)



VI. 현지 주요 연락처

□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번호

<교통>
 철도(SBB) 0900 300 300
 공항(Euroairport Basel/Mulhouse/Freiburg) 061 325 31 11
 항공(Swiss 0848 85 2000 / Lufthansa +49 180 583 842 67)

<응급상황>
 사고 Accident : 0800 140 140
 응급/구호 : Medical emergencies 144
 화재(Fire brigade, emergency number) : 118
 경찰 : Police, emergency number 117
 구조헬기 : 1414

□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 여권/지갑 분실
 -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긴급 단수여권이 발급 가능하며 여권용 사진 2매와 수수료 15스위스 프랑이 필요함
 - 대사관 연락처: +41 31 356 24 44 월~금요일 9시-12시, 14시-17시
 - 긴급 연락처: +41 79 897 40 86
- 여권/지갑 분실
 - 스위스 열차 내 귀중품 도난 혹은 분실 시 SBB철도청에 분실신고 가능
 - 인터넷 분실신고(무료)
<https://www.sbb.ch/en/station-services/services/lost-property-service.html>
 - 현장 분실신고(유료) : SBB 기차역 내 창구에서 분실신고(15프랑)
 - SBB 전화 분실신고 : +41) 0900 300 300 (1.19프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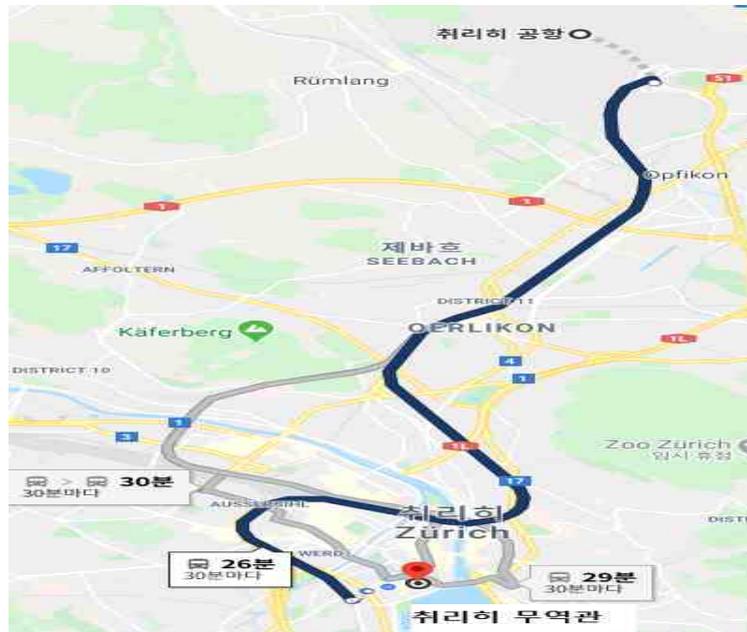


□ KOTRA 취리히무역관 비상연락망

취리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Claridenstrasse 22, 8002 Zurich, Switzerland
- 전화번호: +41 44 202 1232
- 팩스: +41 44 202 4318
- 이메일: ktc@kotra.ch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zurich

○ 공항-무역관 이동



- (기차) Zurich Hauptbahnhof에서 하차(복수 노선 운행) 후 11번 트램으로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트램) 공항에서 10번 트램 탑승, Milchbuch에서 9번으로 환승,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택시) 공항에서 일반 택시 이용 시 약 60~80프랑 예상

□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 비상연락망

대사관 전화번호 : + 41-31-356-2444

대사관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alcheggweg 38, 3006 Bern